

# 컴퓨터 네트워크 – 11 주차

Jong-Kyou Kim, PhD

2015-05-12

## ▶ 사용자를 식별하는 일종의 Cookie

```
GET /spec.html HTTP/1.1
```

```
Host: www.example.org
```

```
Cookie: JSESSIONID=at0nMMEhWhsRkxE5F5XpTF
```

```
Accept: */*
```

# Session 을 이용한 작업

- ▶ `/login` (Set-Cookie JSESSIONID=at0nMMEhWhsRkxE5F5XpTF)
- ▶ `/account` (Cookie: JSESSIONID=at0nMMEhWhsRkxE5F5XpTF)
- ▶ `/transfer` (Cookie: JSESSIONID=at0nMMEhWhsRkxE5F5XpTF)
- ▶ `/submit` (Cookie: JSESSIONID=at0nMMEhWhsRkxE5F5XpTF)
- ▶ `/account` (Cookie: JSESSIONID=at0nMMEhWhsRkxE5F5XpTF)
- ▶ `/logout` (Set-Cookie JSESSIONID=invalid)

# Cookie 를 이용한 세션관리의 한계

- ▶ JSESSIONID 값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?

- Session hijacking

- ▶ JSESSIONID 를 다른 사람이 추정할 수 있다면?

- Session hijacking

- ▶ submit 이 두번 호출된다면?

트랜잭션 id를 발급해서 트랜잭션 id가 같은 게 들어오면  
버리는 전략을 쓴다!

- Application programmer 의 역할

# 웹 생태계

- ▶ HTTP 에 기반한 서비스의 확산 → 상용화 → 기술의 (단순한 적용에서오는) 한계를 넘기위한 노력 → 다양한 기반 서비스의 출현
- ▶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양한 기반 시설의 활용 지식 → 더 낫은 서비스의 설계/운용
- ▶ Caching → Content delivery *전 세계의 콘텐츠를 전세계에 동일한 속도로 전달해주는 서비스*

# HTTP Caching

- ▶ 웹브라우저 - 네트워크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저장해두는 곳은 하드디스크
  - ▶ 일단 받아둔 데이터 → 다시 활용한다
  - ▶ If-Modified-Since 는 날자만 확인. 충분한가?
- ▶ 언제 갱신해야 하나? → Expires 헤더

# HTTP Caching

HTTP/1.1 200 OK

Date: Fri, 30 Oct 1998 13:19:41 GMT

Server: Apache/1.3.3 (Unix)

Cache-Control: max-age=3600, must-revalidate

Expires: Fri, 30 Oct 1998 14:19:41 GMT

Last-Modified: Mon, 29 Jun 1998 02:28:12 GMT

ETag: "3e86-410-3596fbbc"

이전에 가져갔을 때 이 코드로 받았대~

혹시 이 코드가 변했니?

Content-Length: 1040

이 값이 일치하면, 캐시 그대로 쓸게!

캐시가 만료되어도 쓴다.

Content-Type: text/html

- 쿠키를 끄는 사람들에게도 쿠키 대신 쓸 수 있도록...

쿠키 대신에 unique하게 쓸 수 있다!

# Web Proxy Cache

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성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 
네트워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!

로컬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!!

네트워크를 굳이 써야한다면 한번에 가능한 많이 보내는 게 좋다.

(한번 보낼때마다 3-way handshaking해야 하잖아... - 이 때마다 latency!)

커넥션을 한번열고 닫지 않거~

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낸다고 한다면, 슬로우 스타트를 고려하면 여러 커넥션을 유지!

- ▶ 사용자별로 설정 지구 반대편에서 가져오지 않고 내 방로 옆에서 가져오는 거지~  
한명이 지구반대편에서 가져오면, 다른 애들은 개개에서 가져오는 거지!!
- ▶ 모든 Request 는 proxy 로 전달
  - ▶ proxy 에 cache 된 내용 → 서버에 접근하지 않고 전달
  - ▶ 서버에서 가져온 내용 → proxy 에 저장

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상황은 애기가 날때다!

서버는 살아있는데(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연결) 어플리케이션 연결이 안돼!

ping을 보내면 알 수 있겠지.

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?

모니터링 프로그램

웹어플리케이션이 잘 살아있나 계속 체크하다  
죽었으면 다시 띄워~

로컬에서 네트워크로 신호를 보내봐

웹어플리케이션이 살아있다면 무조건 도착해야지.

=> 127.0.0.1(loop back)

- 데이터링크와 물리 레이어까지는 가지 않고

패킷이 도착한다!



# Web Proxy Cach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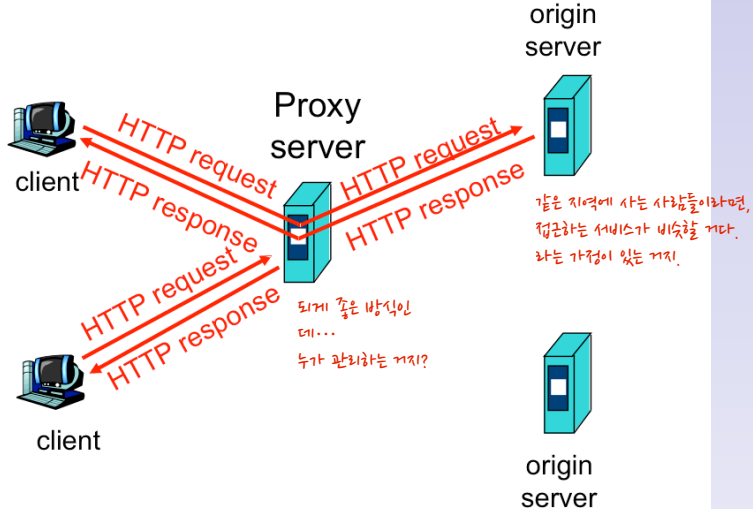


그림: Web proxy

# 웹트래픽의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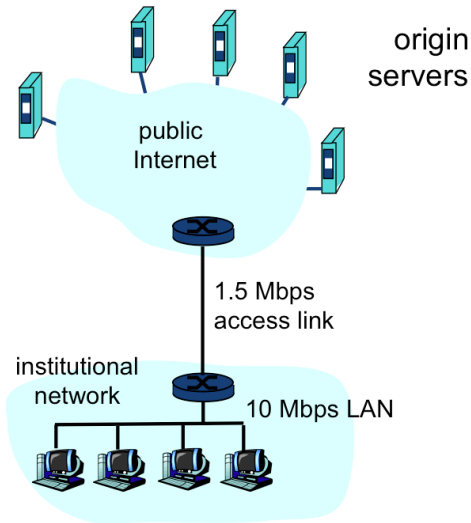


그림: Web traffic

# 웹트래픽의 분석

## ▶ 가정

- ▶ 인터넷 회선용량: 1.5Mbps
- ▶ 평균 파일크기 = 100,000 bits (10 KB) 보통 웹페이지들이 이정도 크기다!
- ▶ 초당 약 15 회씩 request
- ▶ 인터넷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지연 2 초

## ▶ 분석

- ▶ 내부망 활용률 = 15%
- ▶ 외부망 활용률 = 100% congestion
- ▶ 전체 지연시간 = 인터넷지연 + LAN = 약 2 초 + 몇 분  
congestion 이 생기면...

# 회선 증설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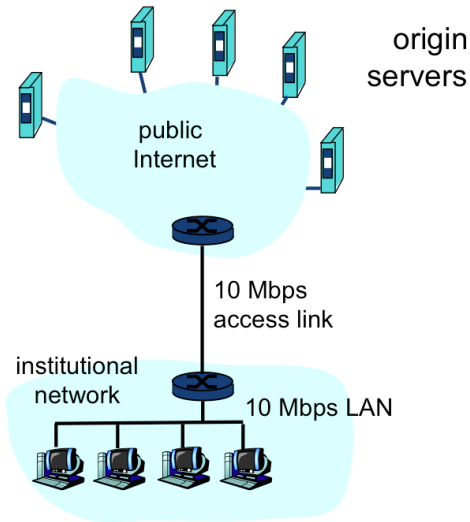


그림: 회선증설

# 회선 증설 효과

## ▶ 가정

- ▶ 인터넷 회선용량: 10Mbps
- ▶ 평균 파일크기 = 100,000 bits (10 KB)
- ▶ 초당 약 15 회씩 request
- ▶ 인터넷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지연 2 초

## ▶ 분석

- ▶ 내부망 활용률 = 15%
- ▶ 외부망 활용률 = 15% → no congestion
- ▶ 전체 지연시간 = 인터넷지연 + LAN = 약 2 초

# 캐쉬 설치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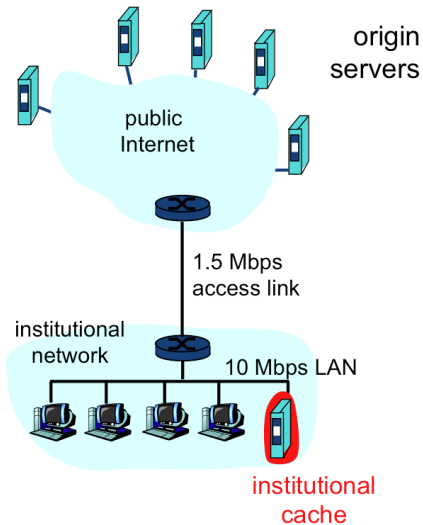


그림: 캐쉬설치

# 캐시 설치효과

## ▶ 가정

- ▶ 인터넷 회선용량: 1.5Mbps
- ▶ **Hit ratio: 0.4** 40% 한번 가져온 파일을 누군가 다시 볼 확률
- ▶ 평균 파일크기 = 100,000 bits (10 KB)
- ▶ 초당 약 15 회씩 request
- ▶ 인터넷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지연 2 초

## ▶ 분석

- ▶ 내부망 활용률 = 15%
- ▶ 외부망 활용률 = 60% (40% 는 내부에서 처리)
- ▶ 전체 지연시간 = (인터넷지연\*0.6) + LAN = **약 1.2 초**

인터넷 회선을 바꾸는 건  
비용이 거의 10배를 더 지불해야 한다.  
서버하나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네!

# 캐쉬의 한계

- ▶ 50% 이상의 HTTP 개체는 cache 가 불가능하다
  - ▶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: 주식가격, 운동경기 결과, 웹캠
  - ▶ 암호화된 데이터 (HTTPS)
  - ▶ Cookie → 남의 세션에 들어가게 됨!
  - ▶ Hit metering → 광고비 산정의 기준

하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니~



# CDN and server selection

글로벌하게 트래픽 서버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 
돈을 받는 거지~~!

- ▶ 많은 서버에 내용을 복사해 두는 것
- ▶ 일종의 캐쉬 → Latency 감소
  - ▶ 최신의 내용
  - ▶ 최적의 장소
- 어떻게? (HTTP 기반 + DNS 기반)
- ▶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자료를 다른 서버에서 찾아가도록 구현
- redirection

# CDN and server selection

- ▶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
  - ▶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 → Latency 가 품질
- 빛의 속도에 제한 → 캐쉬가 유일한 해결책  
가까운 지역에 갖다놓는 게 유일한 해결책

# 최선의 서버 선정

- ▶ 지역적으로 가까운 서버 → 전화국 옆에 사는 LGT 가입자는?
- ▶ RTT 가 가장 작은 서버 → <sup>관리가 잘 안되면...</sup> Packet loss 가 많이 발생한다면?
- ▶ Packet loss 가 작은 서버 → <sup>다 이서버 쓰겠다고 달려들면 혼잡상황이 생길것지.</sup> Congestion 이 발생했다면?

→ 어려운 문제

# CDN 구현 방식 (HTTP 방식)

- ▶ Redirection 이용 (30x response)
- ▶ 작동방식
  - ▶ 서버가 get request 를 받는다 본점에서 손님을 받는다.
  - ▶ 해당 요청을 처리할 적절한 서버를 찾는다 본점에서 자기가 처리할지 본점으로 보낼지 결정 load balancing
  - ▶ Redirect response 를 보낸다

# CDN 구현 방식 (HTTP 방식)

- ▶ 장점
    - ▶ 구현이 간단하다
    - ▶ 서비스 상황을 가장 잘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
  - ▶ 단점
    - ▶ 일단 확보한 연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
- latency 를 증가시킬 수 있다

# CDN 구현방식 (DNS 방식)

- ▶ DNS 에서 반환하는 IP 로 조절 *그래서 요즘엔 DNS를 이용해서 load balancing을 한다!*
- ▶ 작동방식
  - ▶ 클라이언트가 IP 를 요청한다
  - ▶ 가장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서버의 IP 주소를 반환한다

# CDN 구현방식 (DNS 방식)

## ▶ 장점

- ▶ 처음부터 서비스할 서버로 연결해 준다 *커넥션이 유지됨!*
- ▶ 서비스 개발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

## ▶ 단점

- ▶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→ (설정이 어렵다)
- ▶ 서버의 정보를 DNS 와 공유해야 한다 *어느 서버가 붐비고, 어느 서버가 널널한지  
정보를 공유해야함*

- ▶ 세계에서 가장 큰 CDN
- ▶ 최초로 CDN 의 개념을 소개함 → CDN 의 원형
- ▶ 작동 방식
  - ▶ 이미지 등 정적인 자료만 서비스를 제공함
  - ▶ html 내의 link → akamai link 로 변환됨 모든 데이터를 akamai에서 가져오는 것처럼
  - ▶ 캐쉬된 자료 → 바로 서비스함
  - ▶ 캐쉬되지 않은 자료 → 적절한 서버를 찾아 처리
- ▶ 회사로서의 Akamai (2011)
  - ▶ 매출 : \$1.16B
  - ▶ 수익 : \$290.65M
  - ▶ 종업원: 3000 명



# Akamai 의 동작방식

- ▶ 전 세계에 서버를 설치 학교에 남는 컴퓨터가 매우 많았다!  
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컨택해서 지원받음!
- ▶ 고객이 요청한 자료를 복사
- ▶ 고객 서버에 자료 요청
  - ▶ 예: cnn.com/index.html
- ▶ 복사된 자료 부분은 자동으로 변경
  - ▶ 예: 



CDN</sup>  
정적인 자료들을 복사해서~